

시민과 함께 교육생태계 만든다

시교육청,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 개원...늘봄지원센터 등 90여개 사업 추진

광주시교육청이 지자체, 시민, 교육전문가 등이 참여해 새로운 교육생태계를 구축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 개원식이 25일 광주 광산구 신창동 진흥원 대강당에서 열렸다. 행사에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강기정 광주시장, 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장, 김진구 광주교육시민협치추진단장, 5개 구청장, 시의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은 학교, 학부모, 다양한 교육활동가 등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이 교육정책에 참여하는 교육모델을 구현하게 될 기관이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최초로 시민과 함께 아이들의 교육을 실현하게 된다.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은 산하 조직으로 '시민협치기후환경과'와 '지역교육협력과', '학부모참여과' 등 3개 실무 부

서와 '늘봄지원센터', '대안교육지원센터', '광주학부모지원센터' 등 3개의 센터도 함께 운영한다.

시교육청은 설립추진단을 꾸려 1년 동안 교육관련 의제를 발굴하기 위해 '광주교육협치회의'를 구성했고, 환경생태교육을 위한 220팀의 기후위기비상행동실천단, 학업중단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대안교육지원센터 운영 등 대안교육을 총괄했다.

마을교육공동체와 온마을이음학교를 활성화해 교육청과 지자체 간 교육생태계도 새롭게 구축했다. 돌봄과 방과후활동을 총괄하는 늘봄지원센터, 학부모 역할의 대전환을 가져올 학부모지원센터 등 90여 개의 사업을 추진했다.

이날 강 시장과 이 교육감, 동·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구청장 5명은 광주교육 협력을 위한 온마을이음학교 교육통합지원체계 구축 업무협약식을

했다.

협약을 토대로 시청, 교육청, 지자체가 교육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자치구에는 교육협력지원센터인 '이음센터'를 개설해 지역교육 활성화를 위한 허브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김진구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 원장은 "이제부터는 광주의 모든 마을이 교실이 되고, 광주의 시민 정신과 예향 광주의 문화가 학생들의 교과서가 될 것이다"며 "선도적으로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정선 교육감은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은 시민협치, 늘봄학교, 기후환경, 학부모회, 대안교육, 마을공동체 등 목직한 교육현안을 추진할 것이다"며 "학부모님과 교육가족, 광주시들의 응원과 격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 유아 영어학원비 '전국 최다'

월평균 교습비 133만원·전남 103만원

광주의 유아 영어학원 월평균 교습비가 전국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시 만안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광주의 유아영어학원의 월평균 교습비는 133만 2000원이었다.

광주 교습비는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충남(129만 7000원), 인천(128만 7000원), 제주(122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전국 평균 교습비는 110만 9000원이며, 전남은 95만 8000원으로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교습비에 피복·급식·차량·모의고사비 등 추가 기타 경비를 더한 총 교육비는 세종(148만원), 인천(142만원), 서울(141만원), 충남(137만원), 제주(136만원) 순으로 많았다.

광주는 기타 경비가 집계되지 않아 순수 교습비로만 집계했음에도 전국 6위에 해당했다. 전남은 103만 2000원이었다.

전국 유아영어학원 수는 2019년 615개에서 2020년·2021년에 700개를 넘었으며 2022년에는 811개, 그리고 2023년에는 842개로 증가했다.

2023년 기준 광주는 유아영어학원 17개로 5개 광역시도 중 가장 적었다. 전남은 6개에 그쳤다.

강 의원은 "유아에 대한 과잉 사교육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사교육의 존이 심각한 원인부터 진단하고 근본적으로 상위 입시 제도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5·18조사위보고서 평가 및 기자간담회가 25일 오후 광주시 서구 치평동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진행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5·18 유공자·단체와 함께 하는 영화 '1980'

27일 광주·서울 등서 특별상영회

5·18민주화운동을 다룬 영화 '1980'의 개봉일에 맞춰 오월 관계자들과 함께하는 특별상영회가 열린다.

(사)오월어머니집은 27일 오후 3시 40분 광주시 동구 롯데시네마 충장로점에서 '1980' 특별상영회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오월어머니집과 오월정신지킴이 범시도 민대책위원회, 5·18민주유공자 등이 관람할 예정이다.

(사)5·18민주화운동서울기념사업회는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코엑스 메가박스 특별상영관에서 특별상영회를 연다.

상영회에는 영화 '택시운전사'의 실제 주인공 김사복씨의 장남 김승필씨와 (사)5·18서울기념사업회의 회원, 80년 해직연륜인과 민주화운동의 동지들이 동석할 예정이다. 전두환 손자 전우원씨를 응원하는 카페 회원들도 함께 영화를 본다.

특별상영회에는 강승용 감독과 강신일, 김규리, 백성현, 한수연 등 출연 배우들도 함께 참여해 영화를 만들며 느낀 소감을 실제 5·18 현장에 있던 세대와 나눌 계획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오월단체 "5·18 왜곡 조사위 보고서 일부 폐기해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의 조사 결과가 오히려 왜곡·편향의 빌미를 제공해 개별 조사보고서 일부를 폐기 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같은 주장은 25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열린 '진상조사위 보고서 평가회'에서 제기됐다.

평가회는 5·18기념재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 5·18민주유공자유족회, 오월정신 지킴이 범시도민 대책위원회, 광주시, 광주시의회 등이 공동 주관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군·경 피해, '무기고 피습' 등 보고서는 계엄군 측 왜곡된 주장을 그대로 실어 가해자를 모호하게 하고 왜곡의 근거를 재생산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김정호 민변 변호사는 진상조사위가 사법부 판결보다 후퇴한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등 판결을 통해 배척된 신군부의 자위권 주장, 왜곡된 자료라는 판결이 내려져 증거 효력을 잃은 군·경 기록까지 비판 없이 그대로 실었다는 것이다.

또 공정화나 전문가 의견을 듣는 과정을 생략해 검증도 이뤄지지 않았고, 청문회를 열지 않아 특별법상 권한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등 부실 조사를 했다고 꼬집었다.

김 변호사는 "왜곡·조작했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진 군·경 자료까지 무차별 인용하고 '양측 주장이 엇갈려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식으로 호도하고 있다"며 "군경측 증언과 기록을 교차검증 없이 양비·양시론적 시각에서 병렬적 나열한 결과 5·18을 왜곡하는 내용까지 버젓이 담고 있는 보고서가 됐다"고 비판했다.

박경섭 5·18기념재단 5·18진상규명자문위원회 자문위원 또한 "진상규명 불능 결정된 보고서는 오히려 왜곡과 편향의 빌미가 될 수 있으므로 비공개하거나 폐기에 준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은 보고서 간 내용 불일치, 계엄군 개인 진술의 비교 검증이 이뤄지지 않는 등 조사의 신뢰도도 떨어지며 진실 판단 기준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한 5·18유족은 "피해자들을 무시하고 가해자의 주장을 그대로 실어 준 보고서 내용을 보고 가슴이 찢어진다. 이 보고서가 그대로 공개되면 또 어떤 왜곡이 터져나올지 무섭다"며 "가능한 보고서를 폐기하는 방안으로 절차를 밟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암환자 약물 반응 예측' AI 모델 개발

지스트 연구팀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는 AI대학원 이현주 교수 연구팀이 암 환자의 약물 반응을 예측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연구팀은 사람의 유전자 발현 정보와 약물 그래프 정보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개발했다.

같은 암이라도 환자의 유전적 특성이나 암세포의 돌연변이에 따라 약물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약물 반응 예측이 중요하다.

연구팀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세포주(Cell line) 데이터로 학습한 모델을 통해 암 환자의 약

물 반응성을 높은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혀냈다.

이현주 교수는 "세포주 데이터로 약물 반응 모델을 학습하더라도 환자 데이터에서 높은 정확도로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향후 개인 맞춤형 치료를 위한 정확한 약물 반응 예측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지도하고 김주연 연구원이 수행한 이번 연구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교실 박성혜 교수와의 공동으로 진행했으며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의 지원을 받았다.

생명정보학 분야 국제학술지 'Briefings in Bioinformatics'에 지난 14일 게재됐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그린알로에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